

GAS KOREA 2004

제4회 서울국제가스산업전

성공 비즈니스의 열쇠! 세계로 가는 門!



기간 : 2004. 3. 17(수)~3. 20(토)
 전시장소 : 여의도 무역 전시장 9당시장
 주최 : GAS KOREA 2004 조직위원회
 주 관 : 한국가스협회 (전화번호 : 02-639-4000)

GAS KOREA 2004 (제 4회 서울국제가스산업전)

가스분야 특화 전시회 'GAS KOREA 2004(제 4회 서울국제가스산업전)'가 지난 3월 17일을 시작으로 2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서울 무역전시장(SETEC)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삼천리 이영복 사장, 한국가스공사 이규선 부사장, LPG산업 환경 협회 정진성 회장등 가스관련 업계, 단체장등이 참석,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가스산업 및 가스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이해증진 ▷국내외의 가스기술 및 기자재 비교전시로 관련산업 발전도모 ▷국제전문 전시회를 통한 국내상품 홍보 및 해외 바이어 유치를 모토로 하여 진행됐으며, 국내 72개 업체, 해외 8개국의 20개의 업체가 참여, 국제전시회로써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가스관련 국내외의 신기술을 접목시킨 첨단 장비들이 선보여졌으며, 특히 연료 전지, GHP등 가스냉난방기와 소형열병합발전 등이 전시되어 최근 각광 받고있는 가스산업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GAS KOREA 2004(제 4회 서울국제가스산업전)’에서는 가스보일러3사(경동, 귀뚜라미, 린나이)는 신제품을 선보였으며, 2Kw의 가정용 연료전지, 가스에어컨의 GHP의 신제품 등이 관람객들의 인기를 얻었다.

또한 전시기간동안 GHP종합 세미나, 보일러 시공관련 개정법규 설명회, 국제 DHE포럼 등이 개최되어 관람객들에게 이론적인 지식과 가스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가스안전 포스터 전시회, 가스용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시연회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되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GAS KOREA 2004(제 4회 서울국제가스산업전)’는 가스산업의 나아갈 방향 제시, 한국가스산업의 위상화를 이룬 국제 전시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 경동보일러(대표 김철병 www.boiler.co.kr)는 79년 창립 이래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난방문화의 새장을 열며 보일러 보급 활성화를 주도해 왔으며, 1991년 KS 마크를 획득, 88년 네덜란드 NEFIT사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콘덴싱 가스보일러를 개발, 90년부터는 콘덴싱보일러 핵심부품 열교환기를 네덜란드에 역수출을 하고 있으며, 92년 일본 다쿠마사와 기술제휴로 품질을 인정받고 97년에는 흡수식 냉온수기를 일본으로 역수출함으로써 기술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이룩했다. 97년에는 중국으로 가스보일러를 수출하면서는 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품질과 기술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다.



이번전시회에는 파르롱 인터넷보일러, 콘덴싱 가스·기름 보일러, 순간식 비례제어 가스보일러, 스테인리스 기름보일러, 중대형 보일러 등 각종 에너지절약 보일러를 출품했으며, 곧 출시 예정인 ‘Hicozy’ 전기·가스온수기와 스테인리스 관체, 스테인리스 열교환기 등 핵심부품과 순환펌프류를 전시했다.

경동은 이미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콘덴싱보일러와 원격제어보일러 ‘파르롱 보일러’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으며, 기존의 유무선 전화는 물론 인터넷 통신이 연결된 PC나 휴대폰, PDA,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원격제어하는 인터넷보일러도 개발했다.



린나이코리아(대표 강성모 www.rinnai.co.kr)는 79년 창립 이래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1974년 1월 일본린나이주식회사와 합작투자로 설립됐으며, 지난 30년간 고객만족 최우선주의 실현을 위한 설비투자, 신기술 개발, 공장 증축 등의 투자개발에 힘써 각종 가스기기부분의 M/S 1위 업체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가스기구의 명가답게 이번 전시회에서 콘덴싱보일러, 인터넷보일러, GHP, 온수기, 빌트인

가스레인지 등 다양한 가스기기를 전시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올해 출시되었거나 출시예정인 가스보일러 'R300' 과 콘덴싱 보일러 등의 선보여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각방온도를 따로 조절하는 각방온도조절 시스템과 폴리우레탄 폼을 단열재로 채용 열손실을 방지하고 3중 안전장치를 장착한 전기온수기도 전시했다. 이밖에도 인터넷제어 보일러는 현장에서 시연회를 갖고 전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직접 작동해 볼 수 있도록 하여 관람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신 생활문화창조기업'이라는 린나이 비전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환경친화 생활기기를 만드는 21C Only-One 생활문화 창조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으며, 고객감동 지향, 소비자의 불만 해소를 위해 365 연중무휴 서비스, 공휴일 야간 예약서비스, 동절기 24시간 특별서비스, Happy Call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GAS KOREA 2004



귀뚜라미보일러(대표 이동국 www.kiturami.co.kr)는 1962년 창업 이래 40여년간 오직 보일러만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보일러전문 회사로 우리 고유의 온돌문화를 자체 기술력으로 승화, 국내 보일러 기술을 이끌어 100%에 가까운 국산화를 이룩했다.

연100만대의 생산규모를 갖추고 560가지 특허와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기술기업으로 보일러 및 관련 부품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성과로 건국 50주년 50대 히트상품 선정, 21세기 한국을 이끌어갈 50대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출시 예정인 월드 3000 가스보일러, 디자인을 교체하여 올 봄 출시 예정인 거꾸로 타는 보일러와 출광 21 가스보일러등 신제품을 대거 출시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출시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인터넷 명품보일러, 수맥보일러, 거꾸로 타는 순동 기름보일러 등을 전시했으며, 귀뚜라미 가스감지기 119와 각방제어시스템 등 다양한 보일러 및 관련 주요 부품들을 전시했다. 특히 '수맥유해파 차단' 인터넷 명품보일러는 시연회를 가져 관람객들의 발길을 잡았다.

이번에 전시된 인터넷 명품보일러는 IT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고기능을 갖춘 보일러로 외부에서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해 각종 제어를 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적용한 제품이다.



월드조인트(대표 박실상 www.world-joint.co.kr)는 볼밸브 및 각종 관이음쇠 전문생산업체로 70년 남성사란 상호로 출범, 남성정밀을 거쳐 월드조인트로 이어졌으며, 국내 최초로 X-L 관이음쇠를 개발, KS를 획득했다.

이번 전시회에 안전 볼 밸브와 볼 밸브, X-L 파이프용 관 이음쇠, 주름관용 관 이음쇠, 동관용 관 이음쇠, 복합관용 관 이음쇠 등 주력 생산품목을 전시했다. 특히 안전 볼 밸브를 주력 상품으로 전시했다.

월드조인트의 안전 볼 밸브는 지난해 개발한 제품으로 핸들이 단순하게 개폐기능만 하는 기존의 밸브와는 달리 핸들을 접어서 밸브 몸체의 후 부위에 꼭 누르면 핸들이 잠금 기능을 하므로 잠김 상태에서는 핸들을 열 수 없도록 안전기능이 추가된 제품이다. 따라서 안전 볼 밸브는 핸들 개폐를 위한 공간이 좁아도 사용할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가스 및 유체의 유출로부터 2중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가스배관에 적합한 제품이다.



✓ 비비비솔루텍(대표 김기석 www.bbbst.co.kr)은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21C를 선도하는 핵심은 차별화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그 실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다 높은 삶의 질을 구현하기 위해 젊은 생

각이 넘치는 건강하고 열린 조직을 지향하는 업체이다.

비비비솔루텍이 이번 전시회에서 주력품목으로 선보인 제품 무선 각방 온도조절기 'fee cell'은 각방 온도를 차별화시켜 무선으로 제어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족간에 체감온도의 차이로 불편과 갈등은 겪는 경우나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경우에도 편리한 난방 생활이 가능하고 연료비의 절감을 이룰 수 있는 제품이다.

지난해 10월 개발을 완료한 비비비솔루텍은 2003년 11월 무선각방온도조절시스템으로 전파연구소의 인증을 획득한데이어, 12월에는 2003년 특허기술대전에 출품, 거리측정기기로 동상을 수상한 바 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960년대 가스산업이 경제 개발계획과 함께 발전이 시작되면서 가스안전에 대한관심도 높아지고, 대형 가스사고의 발발로 가스안전을 책임질 기관의 필요성도 높아짐에 따라, 1974년 '가스사고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목적아래 고압가스보안협회가 발족됐다. 고압가스보안협회는 가스시설의 점검과 검사업무를 맡아 실시했으며 1979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개편했다.

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가스 시설과 제품의 검사·점검, 가스안전관리종합평가 등의 기술서비스, 노후 가스시설의 시설개선을 위한 가스안전관리자금융자, 해외유명규격인증을 비롯 국내 ISO인증, 국제방폭인증 등의 공인시험·검증업무를 꼽을 수 있다.

최근에는 시험·검사부문의 KOLAS를 획득해 국내 유일의 가스관련 종합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국내기업의 수출활성화는 물론 기술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도 가스안전공사는 연구개발원과 가스안전연구원을 통해 국내·외 가스관련 정부수집, 가스종사자에 대한 교육사업도 실시하는 국내 유일의 가스안전점검기관이다. 지난해 5월에는 충남 천안에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실습시설을 대폭 확충한 교육원도 개원해 교육의 질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